

몽골 결혼이민여성의 한국가정생활 적응 사례*

Case Study on Mongolian Marriage-based Immigrants' Adaptation to
Korean Family Living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

교 수 채 옥 희** · 홍 달아기***

원광대학교 가정아동복지전공 박사과정,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송 복 희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Wonkwang University

Prof.: Chae, Ock Hi · Hong Dalahgi

Dept. of Family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Iksan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super-visor: song, Bok h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고찰 | V. 맺는말 |
|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based on face-to-face interviews with eighteen Mongolian marriage-based immigran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Mongolian family living in general and the Mongolian immigrants' family living in Korea in order to help the immigrants in their initial settlement period and the cross-culture families by providing them with the information on Mongolian family living.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marriage-based immigrants need a great deal of support for Korean language and adaptation to the new life style during their initial settlement period. Meanwhile, the immigrants that have lived in Korea more than three years can benefit from differentiated types of support such as career reinforcement

* 본 연구는 2009년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주저자: 채옥희 (chae@wku.ac.kr)

*** 교신저자: 홍달아기 (dalahong@wku.ac.kr)

programs or empowerment programs. Also, their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to become bilingual in their mother's native language with appropriate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and they will be able to become a great asset to our society in the future.

Key Words : 몽골결혼이민자(Mongolian marriage-based immigrants), 역량강화프로그램(empowerment programs), 엄마 나라말(mother's native language)

I. 서론

한국사회의 외국인 규모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이주여성은 2002년 3만 4,710명에서 2008년에는 15만4,750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대부분은 중국(조선족포함)이 5만 명 이상인 5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베트남 21,150명, 필리핀 7,826명, 일본 6,464명으로 주류를 이루었으나 근래에는 몽골, 태국,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러시아, 캄보디아인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09) 이와 같은 현상으로 한국사회도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인종, 다언어, 다문화 사회의 급속한 증가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정책체계의 재구성 문제가 정부의 당면과제로 제기되었고 결혼이민자 종합대책이 새로운 정책기조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현상을 만들어가는 이주여성들이 하나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속해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남성이 중국 조선족여성들과의 결혼에서도 문화가 달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때 결혼이주여성들이 살아온 국가, 사회, 가정생활문화는 쉽사리 변화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한국가족들은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모든 갈등을 이주여성들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과 한국문화 수행능력의 한계에서 찾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한국문화를 익혀감에 따라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남편이나 시댁가족은 부인. 며느리나라의 문화. 사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거나 무시, 또는 차별을 하며, 내심으로 한국에 왔으니 한국문화를 따르라는 식으로 한국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신념체계가 도전받고 생존하기위해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문화 부적응 스트레스라고 볼 때 국내의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모두가 문화 부적응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결혼이민자들의 국가나 사회 및 가정생활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의 문화나 가정생활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들은 다수 있으나 점차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는 몽골의 문화나 몽골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몽골에서는 국제결혼을 금지하는 상황에서도 외국인과의 결혼하는 몽골여성의 80%가 한국인과 결혼할 정도로 비중이 큰 나라이다.

몽골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결혼이나 가족구조 등 가족상황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사회주의가 종식되고 민주화, 사회의 자유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결혼관에 큰 변화를 가져와서 만혼, 초산연령의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 이혼 및 동거의 증가, 여성가구의 증가,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증가를 가정생활의 큰 변화로 지적하고 있다(T.남질, 2008; 조희금, 2009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몽골인의 가정생활문화를 고찰해보고 몽골에서 온 결혼이민여성 18인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가정생활문화와 한국생활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을 밝혀 몽골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생활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나아가 몽골인 아내를 둔 남편이나 그들 가족들에게 몽골문화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의 사회 환경과 가정생활문화를 고찰하고 몽골과 한국문화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몽골결혼이민여성의 결혼동기와 결혼과정을 알아보고, 한국생활초기적응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하였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지원망, 적응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몽골의 사회 환경

BC 20세기부터 몽골초원에서 유목생활하면서 칭기즈칸 등장과 더불어 몽골제국시대(1206-1368년)에는 몽골인 통합과 영토 확장을 이룩하였으며, 많은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은 정신적인 지주인 ‘칭기즈칸’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몽골의 국토는 세계 200여 개국 가운데 17번째에 속한다. 넓이는 한반도의 7.4배이고 인구는 280만 명 정도이며 수도인 울란바트로에 89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구성은 14세 이하가 32%, 15-64세가 6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은 3%로서 평균수명은 남자 62세, 여자 68세이다(농촌진흥청, 2007).

몽골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로 길고 추운 겨울과 짧은 여름이 특징이며, 맑은 하늘이 1년 중 257일로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평균기온은 11월부터 3월까지 영하의 추위이며 겨울철 밤에는 영하 40도 이하까지 내려가며, 여름에는 33-38도로 무더운 기온이다.

몽골은 세계10위의 자원보유국(금, 은, 구리, 주석, 아연, 석유, 석탄 등)이지만 경제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는 대체로 낙후되어 있다. 1990년부터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도입하여 경제난을 극복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전체노동력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축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약 70%를 차지하며 축산물중 주를 이루는 양의 가격은 한국 돈으로 3만원이다. 몽골농촌 유목민은 교통수단으로 말을 이용했었으나 현재는 말 대신 오토바이나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썰의 난방용 연료도 양이나 말분을 사용했으나 현재는 유류와 장작으로 바뀌고 있으며, 전기를 켜는 경우도 증가하고 TV수상기도 설치되어 있다.

몽골은 유목문화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적절하게 노동 분담을 하며, 때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보충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남편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면 죄 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가정생활속의 교훈이 전래되고 있다. 한편 몽골인 가정생활의 중심에서 여성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몽골의 수수께끼나 속담에서도 볼

수 있다(박환영, 2009). 몽골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보다 높고, 경제권이나 활동에서도 매우 활발하고 생활력도 강하다. 몽골인들의 문자해득률은 86%이상이고 몽골국립대학생의 80%가 여학생으로 교육수준이 높은(조희금, 2009) 점을 보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로 파악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아 몽골은 오랜 역사 속에서 찬란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과 몽골은 민족적으로 유사점이 많다기보다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계통에 속하여 언어와 풍속에서 몇 가지 관련성이 있다. 즉 우랄알타이어족으로 한국어와 어순의 배열이 비슷하고 황인종으로서 피부색이 같다.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랭한 기후로 농산자원생산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경제가 도입됨에 따라 몽골사회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한국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 속에서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여성을 중요시하는 속담과 가정생활속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현재 몽골은 아들딸 차별 없이 교육시키고 있지만 여성들이 진취적이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2. 몽골여성의 결혼동기와 결혼과정

한국으로 결혼해온 몽골여성들은 2001년 64명, 2001년 118명, 2002년 195명, 2003년에는 318명이었으나 2004년부터 해마다 500명 이상의 몽골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왔다. 2008년까지 몽골여성 3,621명이 결혼해 왔으나 300여명이 이혼하였다(통계청, 2008년 혼인통계) 이들은 결혼 후 여성의 기대와 현실에서 오는 차이로 실망과 불행으로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일 것이다.

몽골은 민주화 이후 젊은이들은 평균25세를 결혼적령기로 생각하며 주로 연애결혼을 한다. 혼인풍속은 도시와 농촌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도시인 울란바트로에서는 결혼궁전(예식장)에서 거행하고 시골의 혼인은 신부 측 곁에서 하고 신혼여행은 없으며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집에 가서 함께 생활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2,000불 이상이나 되는 결혼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이 많으며 동거를 하다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일가친척들을 초대해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전북도 대외협력국, 2008)

몽골은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몽골의 인구가 적는데 왜 외국으로 젊은이들을 빼앗겨야 하는가 라는 애국적인 이유이고, 한편 외국인과의 결혼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고 돈에 팔려간다는 시각이다.

L.어용게텔(2006)은 몽골의 미래를 세울 후손여성들이 단지 좋은 삶을 위해 타국을 향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면서 몽골여성들이 몽골을 떠나는 이유가 몽골남성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있음을 질타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하는 몽골여성들의 결혼 동기는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 선택하는 경우이거나, 몽골에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 고단한 인생을 부자를 만나 좀 쉰다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조희금, 2009 재인용).

몽골은 1990년부터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경제, 과학, 에너지, 광물분야 등의 기술협정으로 도로공사나 건설현장에 투입된 한국남성들의 근면, 성실한 모습에 반했다는 몽골여성들은 한국남성과 연애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채옥희, 2009).

Huslen(2008)은 한국인 중매업자들이 몽골에 와서 몽골여성들을 한국남성과 결혼시키는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몽골 쪽 중매업자들의 난립과 부도덕성을 비난하고 있다. 그는 몽골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외국에 나가보고 싶은 호기심이나 삶을 포기하는 심정,

혹은 가족이나 동생을 생각해서 또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데 그러나 외국인과의 결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몽골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하기 전에 한국과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계하여 몽골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한국인 남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조희금,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몽골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이 있음에도 몽골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이 열악하고 몽골남성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타하면서 한국남성들이 근면, 성실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는 등 잘 살아보려는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코리아드림만큼이나 진취적이고 용감한 여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3. 몽골 가정생활문화

1) 몽골 의생활 문화

유목생활을 기초로 하는 몽골인의 전통적인 의생활은 기후조건에 의해 많은 것이 조건화되어 색깔과 상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대로부터 삶의 기쁨을 상징화한 태양과 불의 색으로 붉은색 장식을 하거나 붉은색 계통의 옷을 즐겨 입었다. 몽골인의 의복은 한국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델(Del)을 입고 모자(말가이 =Malgai)를 쓰며 신발(고탈 =Gutal)을 신었다.

몽골의 델은 겨울이 매우 춥고 길기 때문에 추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길이가 길며, 남녀노소가 모두입고 여름철에도 긴 옷을 입는 것은 건조한 기후에 햇볕이 강해 수분을 빼앗기지 않

려는 삶의 지혜라고 한다. 델 속에 바지를 입는데 고대의 바지는 한국의 한복바지와 유사하다(최혜율, 2008).

현대 몽골인들의 의생활은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서양식 복장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든 부인들이나 남성들의 경우 전통복식인 델을 입고 있다. 몽골 사람들은 모자를 매우 중시한다. 겨울 모자는 양가죽과 새끼 염소의 가죽, 털이 많은 담비, 늑대, 야생고양이 등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몽골 신발의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신발을 신을 때는 전통적 방법으로는 천 등으로 발을 감고 신었으나 근래에는 양말을 신는다.

몽골인의 전통의상은 나담 축제(매년 7월에 하는 대축제) 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할하몽골족을 위시하여 10여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전통복식도 다양각색으로 다양하고 화려하다.

현재 몽골 수도인 울란바트로시에 거주하는 약80만 시민은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나 시골 지역의 나이가 든 몽골인은 아직도 델을 입고 말가이를 신고 고탈을 착용한다. 특히 필자가 본 여름철 울란바트로시의 여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짧은 반바지나 티셔츠 차림의 노출이 심한 차림새가 많았으며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하거나 아주 뽀뽀이로 깎은 여성들이 눈에 띄게 많아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를 보여줬다.

2) 몽골 식생활 문화

몽골인은 약 4,000여 년간의 유목생활 속에서 이어져온 유(乳)가공기술은 놀랄만하게 발달되어 있다. 어느 가정에서나 주부들이 가축의 생젖으로부터 술까지 가공하는 과정에서 순서대로 서로 다른 다양한 식품들이 만들어진다. 생젖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고 모두 가공품이다. 몽골의 유산발효가공체계는 유즙의 완

전 이용이란 점과 3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 매우 우수하다(김천호, 2009).

몽골사람들의 평상시 음식은 수태차(Suteychai)를 마시며 보츠라는 만두와 버어브라고 하는 길쭉한 둥근모양의 과자로 보이는 것으로 식사를 하며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먹는다. 특히 몽골인은 5축(畜-말, 소, 양, 염소, 낙타)이 생활전반에 필수적이면서 의·식·주생활까지 해결해주는 중요한 재산이다. 주식은 5축에서 구할 수 있는 육류이다. 고기를 먹는 시기는 주로 봄과 겨울주식으로 붉은 음식은 “올랑이테”이다. 여름철의 주식은 우름이란 버터크림, 버터, 요구르트, 치즈, 젓술 등 발효유가공 식품으로 흰색음식인 “차강이테”이며 가공된 차강이테는 긴 겨우 내내 먹은 고기를 몸으로부터 깨끗이 씻어낸다(김천호, 2009).

목축업을 주로 하는 몽골인들은 말 젖으로 만드는 마유주(알코올 도수 1도 전후의 발효주)를 마시며, 아침에는 몽골전통차인 수태차(suteychai)를 즐겨 마신다. 양고기와 마늘, 파, 달래 등을 속 재료로 넣은 보츠라는 한국 만두와 유사한 요리도 있고 신선료와 비슷한 할롱터거라는 불 냄비음식이 있다.

몽골인은 주로 양고기를 주식으로 삼고 그 밖에 소고기와 염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식을 많이 먹는다. 감자 당근 등 야채는 몽골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며 과일 등 많은 채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몽골인의 식생활이 육류를 주로 먹는데 비하여 한국에서는 김치나 나물 등 식물성 중심이기 때문에 초기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근래에 이르러 몽골인의 식생활이 육류중심이라서 장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문객에게 치즈를 과자 대접하듯이 한다(채옥희, 2009).

선행연구(유가효 외, 2008)에 따르면 몽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한국에서 식생활 갈등이 심하고 특히 남편과 가족이 철저히 한국음식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시어머니를 통해 한국음식조리법을 배워나가는 방식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몽골인의 식생활예절은 손님이 찾아갔을 때 주인은 정성껏 대접하며, 손님이 가기 전에 손님이 가져온 선물을 풀어 보지 않는다. 손님은 대접한 음식과 차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내려놓아야 하며 그대로 내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맛본다고 하며 이는 주인을 멸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주인이 음식을 내왔는데 “배부르다” “방금 식사했다”고 하는 것은 주인의 성의를 무시하는 태도로 여긴다. 안주인은 새 차를 끓여 그릇에 든 차를 손님 앞에 그대로 놓지 않고 반드시 손님의 손에 쥐어 주면 차를 서서 마시지 않고 앉아서 마셔야 한다. 음식 먹을 때는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후 손아랫사람이 수저를 드는데(이안나, 2005) 이는 한국의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풍습과 유사하다고 보여진다.

몽골의 식생활문화는 유목에서 얻는 가축의 육류와 가축의 젖을 원료로 한 음식이 발달되어 있고, 한국은 농경문화를 중심으로 쌀이나 채소를 중심으로 식생활문화가 발달되어 서로 다르지만 식사예절이나 손님접대에 관한 점은 한국인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몽골의 주생활 문화

몽골 전통가옥 겐(ger)은 유목 생활에 적합하게 변형, 발전하여 3000년 동안 계승되어온 원형의 원뿔형태이다. 겐 내부는 안방이고 침실이자 손님방이고 부엌이기도하며 겐 내부를 4개 공간으로 나눌 때 동북쪽은 주인의 공간, 북서쪽은 손님의 공간, 동서의 남쪽은 음식과 생활용품을 두는 공간, 중앙은 가정의 생명이

라고 하는 화로공간이다. 난방은 입식난방이며 침대를 사용한다. 자녀들이 성장하면 자녀를 위한 겔을 짓기도 하고 자녀교육을 위해서 학교 옆에 겔을 지어 조부모와 같이 생활하거나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한다.

몽골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팔짱을 끼고 있거나 뒷짐을 지고 서 있지 않으며 소매를 걷은 채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는 불만이 있어 싸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집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않는다. 휘파람은 뱀이나 벌레 따위를 불러들인다고 생각한다. 잠자리에 들 때 노래를 부르거나 울지 않는다(이안나, 2005).

현대식 아파트는 19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몽골인들의 아파트 거주율은 49.1%수준으로 50.9%가 겔 안에서 생활한다. 울란바트르에는 아파트나 주택의 난방은 중앙난방시스템이며 단독주택의 뜰에는 겔도 동시에 있으며, 상하수도 시설은 완성 되어있지 않고 도시 변두리의 주택에서는 2킬로 이상의 우물에서 식수를 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북도 대외협력국외, 2009).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촌락공동체로 초가집이 모여서 마을을 형성했으나, 몽골은 넓은 초원에 1-2채의 겔이 있으며 공동체 마을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의 전통적인 주생활에서 안채와 사랑채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몽골은 겔 안에 여성은 남성과 구분되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 남녀의 역할과 성별 공간 구분이 엄격했던 한국보다는 정도가 강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4. 몽골 가족관계

몽골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이고 도시의 대가족 비율이 높지만 도시화의 영향으로 결혼 및 가족가치관이 바뀌고 있다. 몽골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남성에 비해 높고,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으로 개방적이고, 파티를 즐겨하고, 성격도 강하며, 자유 분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희금, 2009).

몽골인의 일상적인 생활문화를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설화, 몽골비사와 같은 역사문헌자료, 속담, 수수께끼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몽골사회에서 가정생활의 중심으로 여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분명하다. 유목민으로서 주어진 자연환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의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이 속한 친족집단을 떠나서 남편의 친족집단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인내심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정생활을 실제로 운영하고 지속시켜나가는데 몽골여성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본다.

몽골 여성은 결혼하여 아들을 3명 낳으면 누릴 수 있다는 다르항 며느리(darlhan ber)와 같은 칭호를 받거나 가족이나 친족을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의 확대와 강화는 몽골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핵심적인 역할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상징하는 민속 문화로 볼 수 있다(박환영, 2009).

몽골 가족관계속에서 부모 자녀관계중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어머니 보다 더 영향력이 있으며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특히 결혼한 후에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더 권위가 있다(박환영, 2000).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막내(otgon)아들이 부모를 모시며, 부모의 겔(ger)과 조상들의 초상화, 집에 모시는 가신(家神)의 상(像)과 같은 가족 재산은 보통 아버지로부터 막내아들에게 전해진다(농촌진흥청, 2007).

한편 결혼제도는 몽골사회에서 부처제(patrilocal) 혼인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족전통의 연속성은 결혼 전과 후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달된다. 오늘날 몽골의 소녀들은 결혼 전

까지 보호받는 편이고 관대하게 양육된다. 몽골의 소녀들은 젖을 짜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주로 관여하는 반면에 몽골소년들은 가축을 돌보고 집을 수리하고 가축을 도살하거나 장거리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사냥 그리고 오토바이나 차를 운전하는 일에 관여한다.(박환영, 2000) 이처럼 성(性)에 의한 뚜렷한 노동의 분할에 기인하여 어머니와 딸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 결혼하면 분가하여 핵가족을 이루거나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특별하여 몽골의 결혼한 딸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고 왕래를 하고자 한다.(조희금, 2009) 오토바이나 차를 운전하는 일에 관여한다.(박환영, 2000)

몽골의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생활풍속을 살펴보면 몽골은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고기가 루 국수, 양고기 국수를 먹는다. 아이에 관련된 금기사항이 많으며 아이에게 살이 찘다고 말하지 않으며 아이에게 사랑스럽다, 귀엽다, 복스럽다, 예쁘다는 등 칭찬하는 말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는다. 아이의 손에 입을 맞추면 도둑이 된다고 하고 아이의 목덜미 쪽에 입 맞추면 심술궂은 아이가 된다고 하여 입을 맞추지 않는다. 여자 아이가 13세가 되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을 금한다(이안나, 2005). 이는 한국의 출산 후 미역국을 먹기를 강요하는 시 어머니와의 갈등이 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아이를 귀신이 시샘할까봐 칭찬하지 않고 겁정을 칠하고 외출하는 한국문화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인다.

몽골인들은 종족번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자식이나 형제자매로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이 있다. 업둥이가 생기면 집안의 경사로 생각하여 집안이 융성하고 번창해나갈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둥이도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는 몽골과는 달리 남의아이를 예뻐하지 않는 한국 문화의 차이로 인해 딸을 데리고 재혼해온 몽골 결혼 이민여성은 남편이나 이웃 친척들이 데리고 온 아이를 차별하는 것 같아 힘들어 한다(채옥희, 2009).

한국 전통사회에서처럼 몽골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시집가서 남편의 친족집단에 적응하기위해서 지혜와 용기, 인내심을 강조한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몽골의 가족관계중 막내에게 부모를 모시게 하는 관습이나 업둥이를 친 자식처럼 기르거나 몽골여성들이 활동적이며 파티를 즐기며, 여성의 권한이 큰 것 등은 한국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5.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 갈등과 적응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이 겪고 있는 초기적응의 갈등 중 첫째가 언어장벽으로 인한 부부간의 대화부족이 일상생활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으로 누적되거나 폭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충격과 갈등으로 인한 문화부적응 문제이다.

최초로 경험하는 것은 음식문화의 차이이지만 한국의 가부장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문화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고 생활해 나가면서 사회적 편견이나 생활습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강복정, 2006). 또한 남편들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가 많아 시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어 부부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다문화가정의 특징이다.(평택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08)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시댁식구와의 문제는 고부갈등, 시댁식구의 지나친 개입 등이며 갈등원인은 세대차이, 의사소통문제,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에

서 발생한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은 외로움,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 등으로 여성들의 정서적 문제가 제시되었으며 이들의 내향적 성향과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주변 지지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의 호소, 불안감, 자녀에 대한 죄책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들을 들고 있다(박정윤 외, 2007). 또 가정폭력과 부인행동에 대한 한국인 남편의 통제, 경제적 박탈감, 사회적지지망의 부족,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많다(이은주, 2007)고 하였다. 이외에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연구들(김오남, 2006; 김이선 외, 2006; 박정윤 외, 2007; 홍 달아기 외 2006)에서 밝혀진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문제는 남편을 비롯한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문화차이, 언어장벽, 자녀교육, 편견 및 차별, 외로움 등으로 집약된다.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갈등은 시댁가족의 지지가 결혼이민자 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뒷받침해준다고 하였고 시부모가 자신을 딸처럼 대하고 아들보다 머느리인 자신과 상의하거나 한국인 머느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등 동서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이주여성의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금혜, 2007).

몽골여성들이 힘들어하는 모국과는 다른 한국생활의 차이는 여름에 습한 기후, 겨울에 온돌위에서 따뜻하게 지내야하는 것, 회나 낙지 등 날 생선을 못 먹는 것, 아침인사 등 인사를 잘하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지나친 가부장적인 문화를 끊고 있다(조희금, 2009). 특히 몽골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다른 나라출신의 결혼이민자들보다 높은 편이며, 언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아서 비교적 빨리 습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건수, 2006). 그러나 음식과 주거양식의 차이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공통적인 문제로 이들이 필요로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중 한국어 다음으로

한국요리법을 지적 할 만큼 식생활적응에 대한 욕구가 크다. 식생활에 대한 갈등은 남편이나 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시어머니, 남편 또는 이웃으로부터 배우고 있다. 또한 몽골여성들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입국초기에는 언어소통의 문제가 가장 힘들고 문화적으로는 식생활에 대한 갈등이 심하지만 한국생활에 적응해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대상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속해 있는 모국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비교해보고, 의식주 생활과 가족생활에 대한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획득과정에서 통계적 대표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례 중심 양식을 채택하였다.

기존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양적 방법을 취하고 있어 한국어가 서투른 결혼이민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생활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은 결혼이민자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면접자의 객관적, 주관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질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면접은 2009년3월부터 6월까지 전북도 4개 시. 군에서 18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면접시간은 한 사례 당 2시간이상 소요되었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는 한국어를 전공한 몽골여성을 통역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본 연

구자들은 몽골의 의식주생활 및 가정생활문화를 이해하기위하여 2008년 7월 10일에서 7월 16일까지 몽골여성의 현지 친정집 5곳을 방문하여 일반적인 사회, 문화와 의식주 및 가정생활을 관찰하여 자료화하였다. 몽골여성을 대상으로 한 면접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로 내용을 정리, 기록한 후 연구문제에 맞게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래 <표 2>에 나타난바와 같이 몽골여성들

8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졸업자도 1명 있으며 대학중퇴 2명, 나머지 5명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보아 학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과의 나이차이가 몽골에서는 일반적으로 2-5세 정도라고 하지만 본 사례자들의 부부간 평균나이 차이는 9세로 한국인 남편과 연령차이가 평균11.8세로 나타난(통계청, 2009) 결혼이민자 부부보다 나이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자들은 울란바트로에서 살았으며 학교를 졸업 후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다.

결혼의 형태는 5명은 연애결혼이며 나머지 13명은 중매결혼이고 남성들은 초혼이 16명

<표 1> 결혼이민자 심층면접용 질문내용

연구문제	주요영역	하위질문
결혼동기 및 과정	결혼동기 및 과정	한국으로 결혼결심이유, 중매, 연애여부
가정생활문화	의·식·주 및 가정생활	몽골과 한국의 의식주생활차이, 현재 적응상태 현재 의식주생활만족정도
가족관계	1. 부부관계 2. 시부모 관계 3. 자녀양육	남편과 초기 적응 시 어려웠던 점 현재 남편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정도 시부모동거여부 및 동거의 장단점 시부모로부터 받은 도움, 남편가족과 만나는 횟수 그들로 부터 받은 도움 현재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 남편과 의견차이 본국의 자녀양육방식과 한국의 차이는?
몽골여성을 위한 지원망	1. 본인의 노력과 가족지원 2. 이웃과 친구 3. 지역사회지원	본인이 이루고 싶거나 하고 싶은 생활은 어떤 것 인가? 주변에 모국인 친구와 만나는 가? 만나면 대화내용은?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가? 남편은 모국인 친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가? 지역사회로부터 지원(한국어교육, 가정생활문화)
기타 생활 갈등과 적응요인	1. 기타 생활갈등 2. 적응과정	언어극복(한국어능력, 배운 기관, 배운 방법) 경제생활적응(현재 경제 만족 정도, 친정에 돈을 보내는가, 돈 벌고 싶은 이유) 생활방식과 가치관(생활방식에서 본국과의 차이, 일반적인 만족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나 기관은?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현재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며 가장 좋은 점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위해 어떤 전략을 세웠는가?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연령 본인 (남편)	학력 본인 (남편)	혼전직업 본인 (남편)	입국 년도	월소득 (만원)	결혼 형태	거주 지역	거주 양식	가족 유형	친정방문 (부모한국 방문횟수)	여성의 현재직업
1	32 (37)	대졸 (대졸)	회사동료	2005	300	초혼 연애	도시	아파트	부부+딸(3세)	3회 (0)	통번역
2	30 (37)	대졸 (대졸)	회사동료	2006	200	초혼 연애	읍	아파트	부부+딸(2세) 시모	2회 (0)	다문화강사 통역
3	25 (41)	고졸 (대졸)	없음 (회사원)	2006	250	초혼 중매	도시	아파트	부부+아들 (3세)	1회 (1회)	무
4	28 (35)	대졸 (대졸)	회사동료	2007	300	초혼 연애	도시	단독 주택	시부모아들 (2세)	3회 (1회)	무
5	38 (50)	고졸 (고졸)	없음 (농업)	2004	100	여제혼 남초혼 중매	농촌	농가 주택	부부+딸2 (8세, 2세)	0 (0)	농사
6	24 (37)	고졸 (고졸)	없음 (농업)	2006	100 미만	초혼 중매	읍	단독	시모 부부+딸(3세)	1회 (1회)	시부모와 농사
7	28 (43)	고졸 (고졸)	우체국 (회사)	2007	200	초혼 중매	도시	아파트	부부+딸(2세)	1회 (1회)	무
8	26 (46)	고졸 (고졸)	호텔 (농축 산업)	2003	200	초혼 중매	읍	아파트	부부+딸(3세)	3회 (1회)	군청 위생점검
9	33 (33)	고졸 (고졸)	재봉사 (농축 산업)	2001	200	초혼 교회	읍	아파트	부부+ 아들(8세) 딸(6세)	3회 (2회)	방문대기
10	31 (40)	대중퇴 (고졸)	학생 (농사)	2001	100	초혼 지인	읍	아파트	부부+아들 (7세)	3회 (1회)	어린이집 조리사
11	38 (46)	대학원 (대졸)	교수 (목사)	1998	110	여제혼 남제혼 연애	읍	아파트	남편 별거중 아들(9세)	3회 (0)	간호조무사
12	30 (38)	대졸 (대졸)	방사선기사 (회사)	200312	200	초혼 중매	농촌	농촌 단독	시부모+부부+ 자녀(6세, 3세)	1회 (이모부내외 1회)	방문지도사 (아동)
13	31 (38)	고졸 (고졸)	없음 (카센터)	200310	200	초혼 중매	읍	아파트	부부+자녀 (6세, 4세)	1회 (1회)	무
14	25 (38)	대졸 (고졸)	초등교사 (농업)	2006	150	초혼 중매	농촌	농촌 단독	부부+2남	2회 (1회)	무
15	34 (40)	고졸 (고졸)	주방장 (농업)	2000	150	중매	농촌	단독	부부+자녀	4회 (2회)	식당
16	24 (42)	고졸 (고졸)	식당 (회사)	200606	100	엄마친구 소개	농촌	단독	시모+부부2명 (3세, 1세)	2회 (1회)	남편 직업없고 본인 식당일
17	37 (44)	고졸 (고졸)	제빵공장회계 (일용직)	2006	100 미만	여제혼 남초혼 동생소개	도시	단독	부부+자녀3 (4세, 9, 13세)	1회 (1회)	남편 직업없고 여성 막일
18	30 (41)	대중퇴 (대졸)	대학생	1998	300	연애	농촌	농촌 단독	시부모+자녀2 (6세, 9개월)	2회 (3회)	시부모 공장

재혼은 2명이다. 여성들도 초혼이 16명, 2명은 재혼으로 자녀를 동반하고 결혼해왔다.

사례자 18명중 2003년 이전과 이후에 한국으로 온 사람은 각각 9명이다. 사례자 대다수는 몽골친정에 1회 이상 4회까지 다녀왔고 친정 부모나 친척들도 3건을 제외하고 1회 이상 한국에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 5명은 직업이 없으며 12명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한사람은 방문대기자이다.

IV. 연구 결과

1. 결혼동기 및 과정

몽골여성들이 한국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남성들은 한국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국제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례1은 몽골 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유학을 앞두고 한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의 남편과 직장 상사-직원 사이로 처음 만났다. 사례2, 4도 남편 통역을 전담했던 그들은 작업현장을 지휘하는 남편의 리더십 있고 성실한 모습과 열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반해 결혼했다.

사례3은 친정엄마가 한국에 가면 돈 잘 번다고 중매회사에 50만원을 지불하고 남편을 소개받아 곧바로 결혼하여 시부모님과 농촌에서 6개월간 생활하다가 시내아파트로 분가하였다. 첫아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도와 줄 겸 한국에온 친정엄마는 2개월간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 몽골로 갔으나 한국에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례5는 동생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잘살고 있고 자신도 초혼에 실패하고 몽골남성이 싫어서 재혼은 생각지도 않았으나 동생내외가 소개

하여 결혼하였다. 사례6, 7, 8, 10도 몽골남성이 싫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던 차에 중매회사를 통해서 1000만원을 지불하고 몽골에 온 남편을 보고 결혼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례7, 8은 나이차가 좀 많아서 걱정하였으나 불만은 없다

사례8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호텔에 근무하면서 몽골 남성들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몽골 남편들은 술 잘 먹고, 일도 안하면서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면서 울고 속상해하는 언니 같은 동료들을 보면서 국제결혼을 결심하였다. 결혼중매회사에 등록하고 6개월쯤 지나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 데이트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 결혼하려했으나 남편과 나이차이가 20세나 되어 부모님의 반대로 애를 태웠다

사례9는 몽골남성에게 시집가기 싫어 재봉 일을 하면서 국제결혼의 기회를 노렸는데 교회의 소개로 동갑내기과 결혼하게 되어 농촌으로 시집오면서 시골에서 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한국에 온 후로 남편은 농촌으로 일하러 출퇴근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사례10은 대학2년 재학 중에 돈 때문에 국제결혼하려고 부모 몰래 사례11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 결정이 된 후 부모님께 통고 못하고 한국으로 왔기에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친정에 하소연도 못하고 살았다.

사례11은 전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물농사법을 배우고자 한국에 오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알게 된 몽골 내 한국교회목사와 연애결혼하게 되었다. 결혼 후 몽골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몽골여성 5명을 한국남성과 결혼시켰고 본인도 한국으로 와서 3년째 생활하고 있다.

사례12는 부모님이 일찍 사망하여 이모 집에서 성장하였다. 학교졸업후방사선기사가 되었으나 좀 더 잘살아보려고 한국으로 시집와면서 자신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남편이 중매회사에 돈을 지불하였다.

사례17도 자녀 2명을 데리고 재혼해오게 된 동기는 몽골남편이 가정에 무책임하고 돈이 생기면 슬며시 집을 나가 다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리는 등 성격이 맞지 않아 혼자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한국으로 시집온 여동생이 쌍둥이를 낳았기에 돌봐주기 위해 한국에 왔다가 성격 좋은 한국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사례18은 몽골에서 대학2년 재학 중 부모 따라 한국 회사에 근무하면서 한국대학생인 남편과 연애 결혼하였다.

몽골결혼이민여성들은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으며 연애결혼이나 초기중매결혼에서 여성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50만 원 정도 지불하였고 한국남성들은 1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급(2009)이 밝힌바와 같이 몽골국가나 사회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몽골남성들은 가정생활이나 자녀양육에 무책임하며 삶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고 여성들은 적극적이며 학력 수준이 높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결혼동기도 다양하지만 몽골여성들의 대부분은 몽골남성이 가정생활에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생각되어 적극적이며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에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 한국남성과 잘 살아보려고 시집온 진취적인 여성들이다. 친정에 돈을 보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친정 방문 시 선물을 가져가는 정도이다. 결혼 방법은 연애와 중매회사, 지인의 소개로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결혼동기는 한국남성에 대한 호감과 몽골 남성에 대한 실망, 초혼실패, 가족권유, 경제적 이유 등을 들 수 있다.

2. 한국과 몽골의 의식주생활

사례자들의 인터뷰결과 의식주생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여 의식

주 생활을 통한 어려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몽골출신 결혼이민자의 모국 의식주생활과 한국 의식주생활의 차이와 가족생활은 부부, 자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 몽골결혼이민자 의, 식, 주생활

(1) 의생활

몽골의 전통복식은 한국의 전통한복과 마찬가지로 행사 때나 축제기간에 많이 입지만 농촌의 나이든 세대는 남자가 실용적인 전통의상을 입는다.

사례1, 2, 7, 11, 12, 13, 17, 18 등 대다수는 한국 의생활전반에 만족해하지만 의복손질법에 대한 차이로 갈등이다. 세탁은 주로 세탁기로 하고 다림질은 잘하지 않으나 남편이 다림질을 요구할 때는 할 줄 몰라 힘 든다. 몽골은 스웨터, 털옷, 가죽옷이 많다고 한다.

사례4, 16은 의복착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이다. 몽골에서 여름철 옷은 허리나 등, 어깨 부분이 노출된 옷을 거리낌 없이 입었는데 한국에서는 남편이 입지 못하게 하지만 시원하고 간편해서 입게 된다. 사례4 시어머니는 핫팬티가 너무 짧다고 나무라지만 간편하다고 말하면서 집안에서만 입는다. 사례9는 몽골의 상은 색이 어둡고 추위를 막는 가죽이나 털옷이 많고 여름에는 드러내는 옷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국 옷은 밝은 색이 많으며 의복에 불편함이 없으나 결혼10년이 다되어도 시어머니나 남편이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못하게 하여 불평하였다.

사례자 대다수는 의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다림질할 줄 모르며 다림질을 싫어하는 경향이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이거나 간편해서 입는다고 한다. 의생활에서는 옷 손질법

이나 연령에 따른 의복스타일에 대한 차이로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몽골에서 의복세탁은 겨울에는 자주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손빨래가 대부분이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 빨래하기는 어렵고 시내에는 세탁기를 사용하는 가정도 많다고 한다.

(2) 식생활

몽골의 식생활은 아침에는 빵이나 우유 등 유제품을 주로 먹고 점심도 비슷하게 간단히 먹으나 저녁에는 양고기를 먹으며 축제기간에는 호쇼라는 튀김만두를 주로 먹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 식생활로서 초기에는 힘들었으나 쉽게 적응되었다.

사례 1, 2, 4, 11, 18은 몽골에 있을 때부터 한국식당에 다닐 기회가 많았으므로 ‘한국음식 마니아’이기도 하나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사례 1, 2가 잘하는 요리로는 불고기, 닭볶음탕, 잡채, 만두를 꼽았고 사례4, 11, 18이 잘하는 한국음식은 김치찌개라고 한다.

몽골여성들은 대부분 “몽골에는 매운 맛 음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 한국음식 먹었을 때는 ‘이게 대체 무슨 맛인가?’ 했으나. 이젠 못 먹는 한국음식이 없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 찌개와 불고기이지만 다른 음식도 대부분 맛이 있다고 한다. 싫어하는 한국음식은 미역국, 청국장, 산낙지, 생선초밥이라고 한다.

사례4는 만두(야채 들어가지 않고 고기, 양파, 마늘만 넣은)를 자주 만들며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한국음식이 모두 맛이 있고, 이제는 김치도 잘 만들고 잡채나 호박전, 생선전 만드는 것이 익숙하고 생선 줄임도 잘 한다. 몽골친정집에 갈 때는 아이분유만 가지고 가며 현재 올란바트로 슈퍼에는 한국김치도 많이 있고 몽골사람들도 한국에 다녀 간 사람

이 많아 김치를 담그기도 하고 잘 먹는다고 말한다.

사례8, 12, 13, 16, 18도 한국음식이 좋아지다가 입덧 할 때 몽골음식이 먹고 싶었다면서 지금도 양고기로 만두를 만들어야 맛이 나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정도 서울이나 광주에 우편 주문한다. 사례8은 몽골친정 방문 시에 김치와 김, 깻잎김치, 쌀 등 햇반, 라면과 같은 한국음식을 가져가는데 이유는 몽골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기름져서 싫어졌다면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다고 한다. 사례14는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자주 만들고 칭찬을 받다보니 어린이집에서 식당일을 2년째 하고 있다고 자랑이다. 사례12는 처음부터 한국음식이 좋았다면서 특히 감자탕, 곰탕, 닭볶음탕은 잘 만들며 몽골에서는 추운 겨울을 잘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한국인은 매 식사에 많은 반찬을 한상 가득히 차려놓고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야지”, “안 먹어” 하면서 너무 많이 먹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몽골에서도 양파나 마늘 부추를 먹으나 5월 이후에는 부추에 독성이 있어 잇몸이 부어오르기 때문에 먹지 않고 당근, 양배추, 과일도 먹지만 비싸기 때문에 양고기를 많이 먹고 쌀밥 보다는 만두를 먹는다고 한다. 사례자들 대부분이 초기에 어려웠던 것은 음식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음식이 재료도 풍부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며 요리법도 다양하여 만들기도 재미있고 정말 맛이 있다고 한다.

몽골친정가족에게 권하고 싶은 한국음식은 김치찌개와 불고기, 삼계탕이며 자신도 잘 만든다고 자랑이다. 한편 한국음식 중에서 싫어하는 것은 새우, 다시마, 미역국, 고등어, 갈치 등 비린내 나는 음식과 청국장이다. 사례자들 대부분은 닭볶음탕과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잘 만든다고 말하고 있으며 입덧 때를 제외하고 몽골음식이 특별히 그리운 적은 없으

며 한국음식이 맛있다고 한다.

사례를 통해 볼 때 식재료에 따른 음식의 선호가 달라서 겪는 갈등 외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응을 잘하여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주생활

주생활에서 사례2, 9, 13, 14는 몽골의 단순한 주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설비와 그릇이나 기구들이 요리법에 따라 다양하고 부엌이라는 공간이 주어져 즐겁다고 자랑한다. 거실에 소파도 설치하고 안방에 침대도 갖추어져 있고 예쁜 이불과 담요 등이 값싸고 좋다 그러나 남편은 “청소를 잘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5와 12는 농촌주택의 좌식생활중 바다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침대와 식탁을 구입하였다

사례6, 8, 9, 10은 몽골여성들은 저녁 취침시 옷을 모두 벗고 잠옷 없이 이불시트로 감고 자는데 “한국인은 침대에 시트도 깔고 잠옷도 입고 이불도 덮고 잔다고 이상하다”고 한다.

사례자들 대다수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불만이 없으나 기후 차에 따른 주거양식의 차이와 청소방법과 취침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8은 서울에서 5년 동안 살다가 시골로 와서 생활하게 되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2-3년 정도 우울증이 생기기도 했었다면서 현재는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일하는 아줌마와 함께 식당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골생활이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답답함과 무료함이 건디기 힘든 것으로 말하고 있어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족관계

많은 결혼이민자관련 연구(이은주, 2007; 김오남, 2006; 김이선 외2006; 박정운 외, 2007; 홍 달아기 외 2007; 강복정, 2006)에서 밝히고 있듯이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부부간의 문화, 성격차이와 의사소통문제로 초기에는 많은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경험한 생활문제를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사례 3, 4, 6, 8, 9, 11, 14, 18에 의하면 몽골은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하는데 한국은 동거를 많이 한다고 말한다. 사례4는 3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남편과의 약속으로 남편은 몽골과견근무를 하고 부인은 시어머니와 함께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로부터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를 배우면서 음식도 같이 만들고 한국생활에 동화되어가고 있다. 남편이 떨어져 있어서 외롭지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기도 한다.

사례3은 처음 6개월까지 농촌에서 시부모님과 한집에서 생활하였으나 문화적인 갈등으로 분가하게 되었다. 이 사례대상은 습관적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음식을 잘 먹지도 않고 음식이나 빨래 등 집안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연어다 놓고 늙은 내가 밥해서 바친다”고 큰소리를 치신다고 한다.

사례8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여 참기 어려웠다면 분가한 지금도 시어머니는 어렵게 살던 옛날을 상기시키면서 절약만을 강요한다고 불만이다.

사례9는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가정생활문화 체험도 하고 왔기에 갈등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면서 요즘 남편과 직접적인 갈등은 사라졌지만 자녀들 교육문제로 속이 상한다고 한다.

사례18은 가정생활에서 불편한 점은 한 집

에 사는 시어머니가 무뚝뚝해서 어렵고 남편이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불만이다.

사례12는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배울 점이 많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운전도 배우게 하고 요리도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었으나 새로운 음식을 배우도록 학원에 등록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어 어려움이 없으나 세대차와 전통적인 사고는 며느리가 참아야할 벽이라고 한다.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사례 12, 15, 16, 18들은 음식을 배우고, 아이를 돌보아주고 생활문화를 시어머니에게 배우고 있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이 심하고 자신들과 맞지 않는 전통적 사고가 힘들게 한다고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가족갈등은 시댁가족의 지지가 결혼이민자 부부의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뒷받침해준다고 하였고 시부모가 자신을 딸처럼 대하고 아들보다 며느리인 자신과 상의하거나 한국인 며느리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등 동서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이주여성의 가족적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최금혜, 2007)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몽골여성들도 시어머니와 동거하면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나 잘 살기 위해서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시어머니의 지지는 가족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시어머니와의 사고의 차이는 이들 결혼이민자들에게 간섭으로 인식하여 불만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일을 못한다, 절약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사소한 생활상의 간섭이며,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은 시어머니의 성격이 무뚝뚝하고, 외출을 못하게 하는 것, 너무 전통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사례8의 남편에 대한 불만은 자녀는 엄하게 길러야 하는데 남편은 45세에 하나 얻은 딸이라면 모든 어리광을 다 들어주어 버릇없이

잘못 기르는 것 같아서 부부간에 불화가 가끔 생긴다. 사례11 남편은 직업이 없고 자녀양육에 관심도 없어 혼자서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자존심과 자녀의 장래문제로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한다.

사례17은 자신은 재혼이고 자녀도 2명 데리고 왔지만 성격 좋은 남편이 잘해주어 어려움은 없으나 돈이 부족하여 자신도 닦치는 대로 일을 한다.

사례2, 7, 12, 14 등 대다수의 사례자들은 아이를 모유로 기르며 첫돌이 지날 때 까지는 과자나 음료수(설탕이 들어간 주스나 요구르트)등은 절대 먹이지 않는데 이유는 이가 나빠져 영구치를 상하게 되면 아이도 고생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면서 몽골 어린이는 충치가 거의 없다고 자랑이다.

사례1과 5, 11의 불만은 몽골 남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잘해주는데, 내 한국인 남편은 피곤하다며 잘 놀아주지도 않고 자녀양육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맡기는 것 같다.

사례5도 남편은 몽골에서 데리고 온 딸아이를 등한시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지 않아서 힘든데다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동네아이들과 적응도 되지 않고 7세가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학교생활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엄마도 한국어를 모르고 생활도 어려워 초기에는 몽골어로 말하면서 딸과 친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된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움은 더 많아졌다. 즉 데리고 온 딸과 태어난 아이의 양육 어려움이 부부 싸움으로 쉼터에서 10일정도 있었고, 친척들의 시선도 곱지 않은 자신의 딸이 가정과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당하지 않을 까 걱정하고 있다.

사례1, 2, 8, 9, 12, 13, 18은 한국생활에 대해서 80%이상은 만족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 다툼 때 남편이 몽골로 돌아가라고 하면 가장 슬프고 몽골로 가지 않는다고 소리치

면서도 이방인 같아 허전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몽골여성들은 한국에서 잘살아보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온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몽골은 결혼하면 무조건 분가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면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도움을 많이 받지만, 시어머니 간섭이 힘 든다고 하고, 남편과의 갈등은 자녀교육방법에 대한 견해차이로 자신은 엄격함을 강조하는데 남편은 과보호적이거나 무관심하여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떠맡기고 있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데리고 온 딸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갈등하고 있다.

4. 몽골여성을 위한 지원망

1) 본인의 노력과 가족들의 지원

사례3은 아이를 낳고 한국어 수업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생활문화를 조금이나마 알게 된 후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매주말마다 시어머니 댁에 가서 반찬도 가져오고 남편이 만드는 음식을 눈여겨보고 배우면서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채소를 먹어야 장수한다는 말에 지금은 김치도 맛이 있고 된장찌개와 미역국도 잘 만든다고 자랑이다.

사례9는 남편이 현재에도 말이 없어서 불만스럽지만 초기에는 서로 성격을 잘 알 수 없어 잘 부딪쳤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참는 법과 음식 만들기를 가르쳐주었으며 지금도 시어머니는 모든 반찬을 만들어 주고 자신은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운전하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사례10은 한국생활 8년에서 즐거움도 많았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으나 시부모님의 배려로 읍내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남편은 1주일

에 1회 정도 투석하고 있기에 남편건강이 항상 걱정 이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평소 취미였던 음식 만들기를 열심히 하여 어린이집 식당에서 일하면서 보험도 넣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다. 자가용 운전으로 남편을 농촌으로 출퇴근시키며 자신도 어린이 집으로 출퇴근한다.

사례12는 한국생활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너무도 산골이고 답답하던 차에 몽골친구 따라 대전으로 몰래 가출하려는 자신에게 시아버지가 정류장까지 와서 10만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구경 잘하고 오라는 말씀이 지금까지 산골 마을에서 즐겁게 살게 했다고 고마워한다. 한국생활을 위해서 무엇이든 배우면서 자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를 위한 보험도 들고 시부모 출타를 위해 항상 운전사가 된다고 자랑이다. 한국에서 잘 살기위해서 컴퓨터, 운전, 요양보호사, 한국어능력시험에 모두 합격하였고 지금은 방문지도사로 활동하고 남편은 기술자였으나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유창한 한국말로 자랑이다.

사례 6, 9, 10, 11, 12, 13은 자신이 한국생활적응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한국말을 잘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위한 보험을 들었다면서 한국인으로 자녀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몽골결혼이민여성은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채옥희, 홍달야기, 2007) 여성들보다 고학력이라서 그런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이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으로 초기적응부터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자 18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15명이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사례도 6명이나 되었으며 미래를 위해 자녀와 자신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6명이다.

2) 이웃과 친구의 지원

사례 6은 처음에는 한국말이 서툴러 시댁 가족과 어울리기가 어려웠고 김치나 된장, 청국장과 같은 음식을 먹는 게 힘들었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공부도 하게 되고 한국말을 조금씩 알아듣게 되면서 시댁에서 결혼에 많은 반대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대이유는 몽골여인들이 혼전에 성관계가 문란하다거나 겔에서 살기 때문에 위생관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으나 본인은 아파트에서 살았다면서 이웃들의 편견이 없었으면 한다.

사례7, 13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의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웃들의 비난도 받았지만 지금은 이웃의 도움으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르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방식을 알게 되고 한국음식 만드는 방법도 배운다고 한다.

00군에는 8명의 몽골여성들 중 5명이 몽골 여성의 소개로 결혼해왔으며 이들은 1개월에 한번 씩 읍내의 음식점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만난다. 좋은 점은 몽골어로 마음껏 수다를 떨고, 먼저 온 동포로부터 한국생활정보도 얻고, 자녀양육에 대해 공유하면서 작은 옷은 서로 돌려가면서 입게 하고 고향에서 보내온 차와 치즈를 나누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한다.

사례7도 한국요리나 풍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몽골에서 일찍 온 친구하고 만나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식 만들어 맛을 보게 하고 맛이 없으면 다시해보고하는 과정에서 한국생활적응이 더 용이해졌다면서 센터에 한국어 공부하러 올 때도 이웃언니가 차로 태워다 준다고 한다.

사례10은 근래에 친정 이모가 몽골에서 왔는데 이웃들이 일자리를 알선해주어 3개월간 일하고 돌아갔으며 시어머니와 이웃이 고맙다

고 말한다.

사례15, 16은 남편이 직업이 없으나 본인들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식당주인에게서 음식 만드는 방법을 많이 배웠다면서 앞으로 한식과 몽골식을 겸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인 이웃과 친하게 교류하는 단계는 5년이 넘어야 가능하고 입국초기에는 한국인 이웃의 도움보다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모국의 결혼이민여성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한국생활적응이 힘들고 고향생각이 날 때마다 서로 만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 자조모임도 중요하다. 초기정착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먼저 온 이주여성들이 나중에 온 이주여성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 양성의 기회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지원

사례1, 2, 4, 11 등은 한국 TV에서 다른 나라의 이모저모를 많이 보여주는데, 몽골의 경우 꼭 양을 치는 초원만 클로즈업하여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한다는 점을 일부러 강조하는 듯하다. 울란바토르의 박물관과 문화공연도 비취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례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이해 강사교육을 받은 후 군내 초중등학교에서 몽골에 대한 다문화이해 강사와 방문아동양육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즐거워한다.

사례3은 아파트에만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더울 때 이웃사람들과 마트에 가서 피서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물 분수 쇼도 보면서 답답함을 달랠다면서 하루가 즐겁다고 한다.

사례5는 시골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여 남편과 다투고 쉼터에 간 일이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

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한국농촌생활을 배우면서 한국생활이 즐겁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은 ‘부지런함’ ‘애국심’ ‘효심’ 등 인 것 같다. 그러나 남편은 친구와 너무 잘 어울려 술을 많이 먹고, 이웃에 일이 생기면 밤을 새우며 돈을 없애고 온다고 불평이다.

사례 8, 9, 10, 11, 15는 같은 군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엄마나라의 말인 몽골말을 가르쳐줄 기회가 오기를 원하면서, 필리핀자녀들은 영어를 배우며 자랑스러워하는데 자신들의 자녀는 말할 기회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례12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도움으로 한국어능력시험도 치루고, 요리, 컴퓨터, 자동차 운전도 배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방문지도사까지 선발되어 활동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한다.

대다수 사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언니들과도 어울려 자신의 나라말로 수다 떠는 사랑방이라고 즐거워한다.

한국에서 5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만큼 이주여성들 간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본국여성들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한국이웃과 적극적인 교류도 중요하다. 엄마나라의 말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의 마련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신문이나 방송은 다양한 나라에 대한 보도에서 편협하고 왜곡된 표현은 삼가야 할 것이다.

5. 기타 생활에서 경험한 문제와 적응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이 힘들 것을 예상하고 한국에 온 몽골여성들 대부분은 TV 드라마 요리채널 등 X재단에서 파견하는 유료

방문한국어 선생을 만나 한국어를 습득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례9는 몽골에서 기본적인 한국어를 5개월 정도 배웠기에 한국에서는 사전과 어린이 동화책을 통하여 몽골어와 어순이 같은 한국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사례3은 시내아파트에서 생활하므로 본인은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한국으로 초청해주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좁은 아파트에서 장모와 생활하는 것을 남편이 싫어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고 한다.

산골에 시집온 사례5는 몽골에서 할 일없이 살다가 한국농촌일은 끝이 없이 이루어져 생활하는데 힘들고 답답하여 우울증이 생길지경이었다. 이웃들도 만나기 어렵고 만나도 대화도 통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생기는 돈도 없고 눈이 내릴 때는 고향생각이 나서 어디든 나가고 싶은데 갈 곳도 없어 힘들었다고 한다.

사례5, 8, 9, 10, 11, 12, 13, 15, 18은 2003년 이전에 온 사례자들로서 한국어 가르쳐주는 기관도 없었기에 한국어도 남편이나 TV, 사전을 통하여 배우면서 몽골어와 어순이 같아서 쉽게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례9 농촌생활이 너무 싫었고 자녀교육을 이유로 읍내 아파트로 이사하여 처음 식당에서 일했는데 “빨리빨리”와 “그것도 못 하나”에 질렸고 스트레스가 많아 그만뒀다면서 특히 주인이 종업원을 무시하고 남자손님이 여자종업원을 무시하는 태도가 싫었다고 한다.

사례11, 12, 13, 17, 18 등은 한국 아줌마들이 “몽골에는 진공청소기나 냉장고가 있어요?” 하고 곧 잘 묻는 것도 자존심 상한다. 나의 이웃은 남의 삶에 대한 참견이 지나치다. 요즘도 한국말을 잘하니까 처음에는 한국 사람인 줄 알다가 몽골 사람인데 한국 남자와 국제결혼을 했다고 하면 “시집 잘 온 것” 이라고 얘기하면서 몽골은 못사는 나라 라고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다.

사례11은 남편과 몽골에서 3년간 생활하면서 중매업을 하였는데 한국에 와서 그들의 결혼생활을 보니 현실과 크게 차이가 있어 소개하는 것을 그만두고부터 남편과 갈등이 심해졌다

사례12와 13도 산골에 시집온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손질을 해가면서 말 잘 타느냐, 무엇 먹고 사느냐, 땅덩이는 넓겠냐 등 한국음식을 먹으면 그것도 잘 먹느냐 면서 비아냥 거리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기도 싫었다고 한다.

사례17은 남편의 성격도 좋고 데리고 온 자녀들을 잘 보살피주기에 정신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가정경제가 너무 힘들어 본인도 닥치는 대로 일을 하지만 한국인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는 것 같다고 한다.

사례자들 대다수는 처음만난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은 방 한 칸에서 가족모두가 사느냐?, 부엌은 있느냐? 무엇을 먹느냐? 형제는 다 무엇을 하느냐? 말 잘 타느냐? 등의 질문들이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사례자들이 말하는 한국 사람은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 “빨리 빨리”라고 하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자존심이 상한 문제라고 한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초청해주기를 요구하여 힘든 경우가 있는가하면 아내에게 중매하기를 요구하여 힘들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몽골여성들은 자기중심적이며 자존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몽골여성들은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 한국어를 잘 배워야 하고 남편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자녀교육에 엄격함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들의 갈등은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차별대우와 지나친 관심과 무시, 친정가족에 의한 부담 등이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V. 맺는말

본 연구는 몽골결혼이민자 18명을 중심으로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이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몽골가정생활문화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몽골결혼이민자들의 한국가정생활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자료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몽골 가정생활문화이해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몽골은 전통적으로 한국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질서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여성을 중요시하며, 몽골결혼이민여성 대다수는 한국의 의식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며 몽골 의식주생활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몽골 의생활은 현재 도시민 대다수는 여름에는 한국의 의생활과 다르지 않으나 젊은 여성들의 노출이 심하고, 농촌의 나이든 남녀주민은 몽골전통복장을 입는 사람이 많다.

몽골 식생활은 주식이 육식으로 양고기를 많이 섭취하며 유가공식품이 발달되어 있다. 한국음식을 접하는 초기에는 힘들었지만 닭볶음탕, 김치찌개, 불고기 등은 좋아하고 미역국, 순대, 낙지, 오징어, 생선초밥 등 생선종류를 싫어한다.

몽골 주생활 중 전통가옥은 겐(ger)로 유목생활에 적합하여 현재에도 많은 사람의 거주형태이지만 도시민 49.1%가 아파트생활을 하고 있다.

몽골 가족관계는 한국 전통사회처럼 시집가면 남편의 친족집단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혜와 용기, 인내심을 강조한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몽골에서는 막내아들이 부모를 모시는 관습이나 업동을 친 자식처럼 기르는 것은 한국과 다른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장남이어서 시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친자가 아닌 아이를 기르는 것 보다 더 싫어하는 경향이다

둘째, 몽골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 동기는 몽골남성이 가정생활에 무책임한 반면 한국남성은 근면, 성실하며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에

책임감이 있을 것 같아 잘 살아보려고 시집은 진취적인 여성들이다. 이들의 결혼생활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남성들에게 공인된 기관에서 결혼준비교육을 시킨 후 인증서가 결혼준비기관의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며, 한국남편들에게 지속적으로 배우자교육이나 부부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 중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여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고, 몽골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이다.

남편과의 갈등은 결혼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것들로 언어소통, 가부장권, 문화차이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이로온 점도 많지만 간섭하거나 잔소리를 많이 하여 세대차를 실감하지만 인내하면서 산다.

넷째, 비교적 고학력자인 몽골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적응을 위하여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지원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등의 공인된 자격을 취득하고 미래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몽골자조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도 공유하지만 한국인 이웃사람들과는 아직도 이방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들의 사랑방이며 지지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요약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5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런 만큼 이주여성들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들의 초기적응에는 적극적인 한국어와 가정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차별화된 역량강화나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사회의 지역신문이나 방송매체는 다문화인식개선과 편견을 없애기 위한 홍보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남성을 위한 결혼준비교육이 요구되며, 결혼이민자 남편들은 아내나라 말을 배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자녀들은 엄마나라 말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사회통합의 인적 자원으로 길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복정(2006). 국내결혼이민자가족의문제점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결혼이민자실무자양성워크숍 자료집.
- 2)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4) 김천호(2003). 몽골비사의 음식문화. 한국몽골학회 15, 181-205.
- 5) 김천호(2009).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중 몽골의 음식과 문화. 대한가정학회·한국몽골학회·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70-77.
- 6) 농촌진흥청(2007). 국제결혼상대국가의 사회, 가족과 결혼문화를 통한-다문화사회이해. 농촌진흥청.
- 7) 박정윤(2007). 결혼이민자가족생활에 관한 사례연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 선포. 대한가정학회지 창립60주년기념 통합포럼 및 기념자료집, 89.
- 8) 박환영(2000).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본

- 현대 몽골의 가족과 민속에 대한 일 고찰. 한국문화몽골학 20, 215-230.
- 9) 박환영(2006). 몽골 비사에 보여지는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몽골학회 20, 215-231.
 - 10) 박환영(2008). 몽골의 전통과 민속보기. 서울 : 박이정출판사.
 - 11) 박환영(2009).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중 몽골의 가정생활문화에 대한 일 고찰: 여성 민속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51-69.
 - 12) 유가효, 홍성희, 김성숙(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적응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2(2), 95-121.
 - 13) 이안나(2005). 몽골인의 생활과 풍속. 울란바트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14)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필리핀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 15) 전북 대외협력국, 제5거점센터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2009). 다문화사회를 위한 몽골 이해. 전북 : 한별문화상사.
 - 16) 조희금(2009).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중 몽골 결혼이민자여성의 원 가족에 대한 이해.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78-96.
 - 17) 채옥희(2009) “다문화사회와 생활문화: 아시아문화권의 소통과 공존을 위하여” 중 몽골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 · 한국몽골학회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 97-110.
 - 18) 채옥희, 홍달아기(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61-73.
 - 19) 최금혜(2007). 조선족여성들의 한국생활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2(1), 143-188.
 - 20) 최혜율(2008). 유목민의 꽃-몽골여자복식의 흐름. 서울 : 민속원.
 - 21) 통계청(2009). 2008년 혼인통계자료. www.kostat.go.kr.
 - 22)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2008). 다문화사회와 사회복지교육의 역할. 경기 : 평택대학
 - 23) 한건수(2006). 농촌지역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4)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2.
 - 25) Misun Lee(2008). The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in Mongolia. 2008 International Symposium on Life and Culture, 57-86.
 - 26) T.남길 저, 이안나 역(2007). 몽골의 가정예절과 전통. 서울 : 민속원.
- 투 고 일 : 2009년 10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0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11월 26일